

ISSUE BRIEFING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

이슈브리핑
2021. 02. 25 vol.242

연구진
이성재_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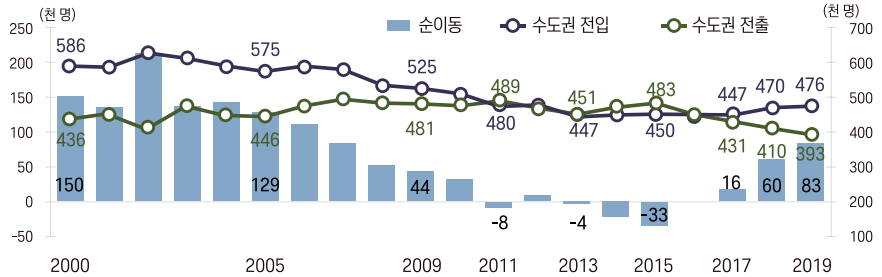
1. 2020년 : 3대 인구 리스크 본격화

(1) 수도권 인구 절반 넘어 : 비수도권 인구 추월

- 수도권은 2011년 최초로 순유출 된 이후,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순유입 규모 점차 증가

- 수도권 인구비중(%) : ('04.12) 47.8% → ('10.12) 49.2% → ('20.03)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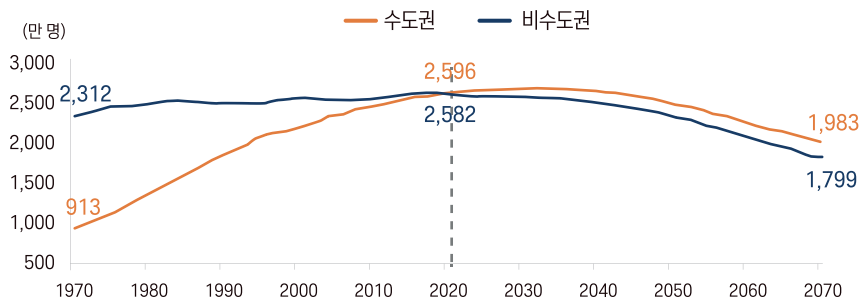
[그림] 수도권 순이동 추이 (2000~2019)



자료 :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20.06.29.

-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증가 및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 3월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추월
- 최근의 인구변동요인 추세 지속시, 향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계속 많을 것으로 전망

[그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197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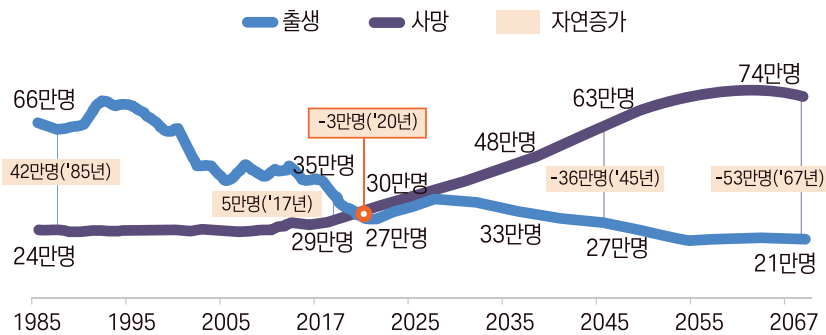
자료 :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20.06.29.

(2) 데드크로스 : 사상 첫 인구감소

- 2020년 출생자수는 역대 최저인 27만 여명, 사망자수는 역대 최대인 30만명을 넘어 인구의 자연감소 시작, 인구 오너스의 부정적 효과 본격화

- 등록 출생아수(275,815명) - 등록 사망자수(307,764명) = △31,949명

- 통계청은 향후 2045년에는 현재 자연감소 규모의 약 10배인 36만 명 감소, 2067년에는 53만명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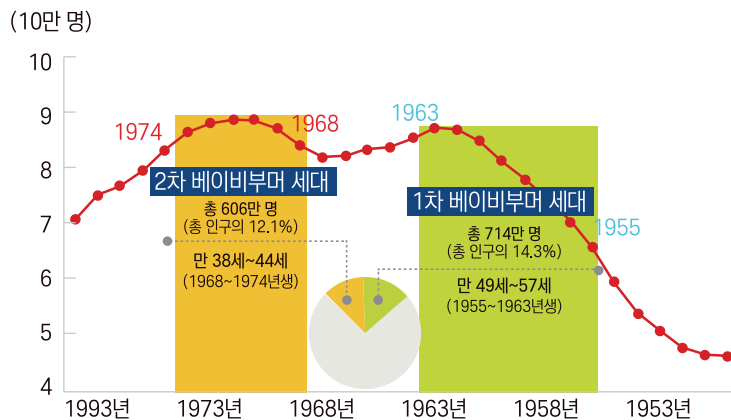


[그림] 출생·사망·자연증가 (1985~2067:중위)

자료 :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2019 재정리

(3) 초고령사회 임박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 2020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첫 해에 해당하는 1955년생이 고령층에 진입한 해로 향후 8년간 약 714만 여명의 잠재 수요 발생
-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의 규모 고려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5년 내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진입 예정



[그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분포

자료 : 베이비붐 'Old-age'가 아닌 'Golden age', IBK기업은행, 2012

2. 인구감소시대, 뭉쳐야 산다

(1) 과거 시·군(市·郡) 단위 행정구역 통합

- 지방선거가 민선으로 완전히 전환된 1995년 1월 시(市) 지역과 군(郡) 지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39개의 도농통합시가 출범

* 전북(5)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1995년 이후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 1998), 창원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 2010), 청주시(청주시·청원군, 2014) 등 3개 지역 통합되어 현재의 행정구역 형성

(2) 최근 시·도(市·道) 단위 초광역 도시 논의 진행

- 최근 들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광역지자체 간 행정 또는 기능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대구·경북 통합, 광주·전남 통합,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충청권 메가시티

-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3+2+3 광역권) 전략 발표(2020.12.9)

- 그랜드(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행정통합형(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소권(전북, 강원, 제주)

(3) 전북의 내부 광역화를 위한 생활권 중요

- 전북을 둘러싼 인접 시도에서 초광역 대도시 형성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종속변수에서 주체적으로 발전하는 독립변수로 발전시켜 작지만 강한 독자권역 조성 필요

- 인구(만명) : 수도권 2,600, 동남권 780, 충청권 570, 대경권 608, 광주전남권 325

- 전북을 강소형 독자권역으로 조성하고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광역화 필요

- 내부 광역화는 행정, 경제권, 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며, 생활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도시권 설정(CBSA : Core Based Statistical Area)은 중심도시와 인접지역 간의 통근율과 역통근율 등 통근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간 연계·통합 정도를 파악

3. 지역간 통근·통학 및 생활권

(1) 지역간 통근·통학¹⁾

- 시군 간 통근·통학량(2015)은 전주시↔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주시↔익산시, 전주시↔김제시, 전주시↔군산시 순
 - 전주↔완주(35,676명), 전주↔익산(15,750명), 전주↔김제(10,677명), 전주↔군산(8,725명)
 -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군간 전체 통근·통학량 122,937명 중 29.0%에 해당하고, 전주↔익산은 12.8%, 전주↔김제는 8.7%

구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8,725	15,750	4,707	2,312	10,677	35,676	2,875	563	1,238	4,300	1,061	690	1,595
군산시		8,592	363	100	1,915	863	39	45	33	64	20	159	486
익산시			896	168	4,569	4,972	97	51	66	127	37	159	573
정읍시				20	731	287	26	2	7	63	131	1,131	823
남원시					32	176	9	16	382	479	309	9	2
김제시						1,129	38	0	0	51	6	51	729
완주군							230	35	40	313	42	77	113
진안군								86	143	96	0	0	3
무주군									105	4	17	0	0
장수군										126	11	2	0
임실군											95	3	10
순창군												7	11
고창군													166

주 : 음영은 전체 평균(1,351명)보다 높은 지역
 자료 : 인구총조사(2015) 재정리

(2) 통근·통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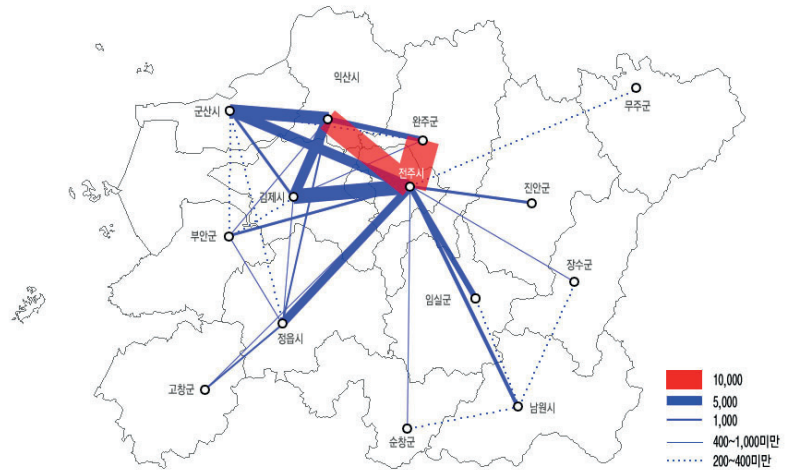
- 시군 간 통근·통학량(1995~2015) 변화는 전주시↔완주군(18,069명, 102.6%)으로 가장 크고, 전주시↔익산시(3,316명, 26.7%), 전주시↔군산시(3,105명, 55.2%), 전주시↔김제시(2,678명, 33.5%) 순

1) 통근 인구는 12세 이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 통학 인구는 12세 이상으로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

[표] 시군 통근·통학량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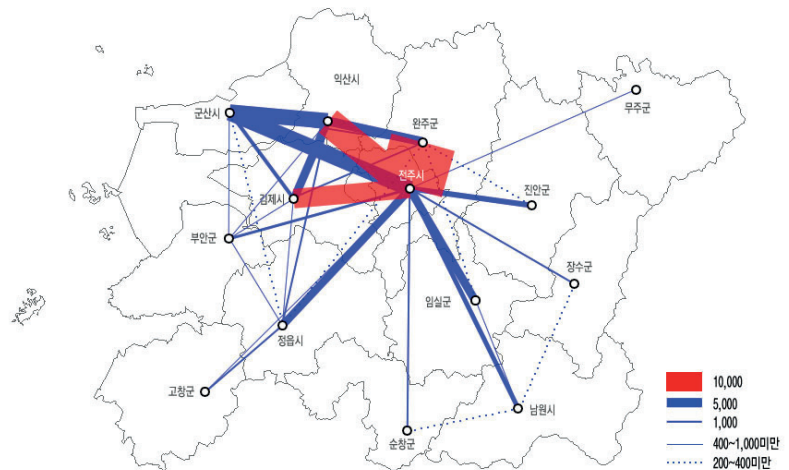
- 전주시 외 지역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2,095명, 72.8%), 군산시와 익산시(1,402명, 19.5%)간의 통근·통학량이 높게 증가
- 동부권 6개 시군은 전주를 중심으로 통근·통학량이 증가하고, 진안군과 임실군은 완주군과의 통근·통학량 증가
 - 과거 통근·통학량이 많았던 남원시와 임실군을 제외하고 기타 동부권 지역은 1995년 대비 전주시와 50% 이상이 증가했으며, 특히 순창군이 122.4%로 높게 증가
-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중심으로 3개 시군 간 통근·통학량 증가
 - 군산↔김제(1,485명→1,915명), 군산↔부안(312명→486명), 김제↔부안(399명→729명)

[그림] 시군간 통근·통학량 (1995)



자료 : 인구총조사(1995) 재정리

[그림] 시군간 통근·통학량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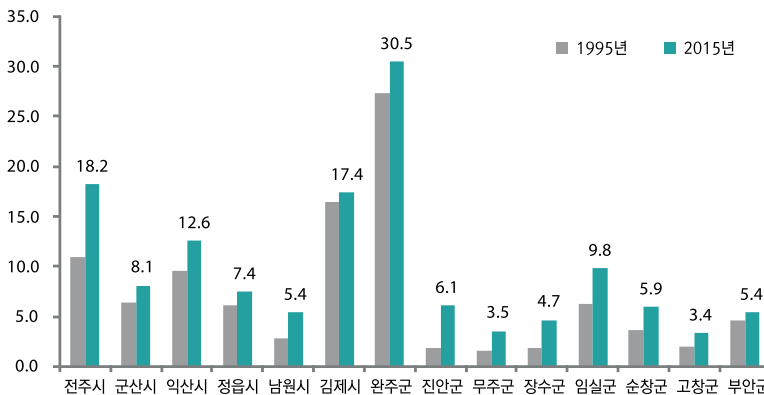
자료 : 인구총조사(2015) 재정리

(3)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 시군별 도내 통근·통학 대비 도내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완주군이 30.5%로 가장 높고, 전주시 18.2%, 김제시 17.4%, 익산시 12.6% 순
-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직장 또는 학교, 학원 등을 위해 주간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야간에는 거주지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995년	10.9	6.4	9.6	6.1	2.8	16.5	27.3	1.9	1.5	1.9	6.2	3.6	1.9	4.6
2015년	18.2	8.1	12.6	7.4	5.4	17.4	30.5	6.1	3.5	4.7	9.8	5.9	3.4	5.4

주 : 음영은 2015년 전체 평균(9.9%) 보다 높으면서 1995년 대비 비율이 증가한 지역
 자료 : 인구총조사(각년도) 재정리



[표/그림] 도내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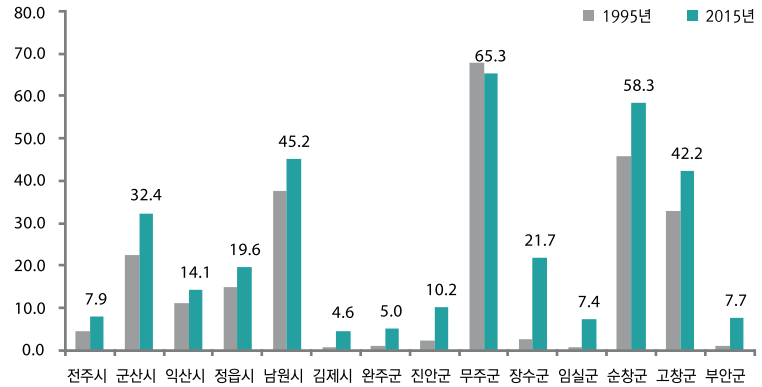
- 시군별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대비 도외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무주군이 65.3%로 가장 높고, 순창군 58.3%, 남원시 45.2%, 고창군 42.2%, 군산시 32.4% 순으로 상대적으로 도외 지역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부권
- 도외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시군은 전주시와 원격 거리, 타 시도의 중심도시와 근접 거리에 위치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995년	4.6	22.4	11.1	14.8	37.6	0.8	1.0	2.3	67.9	2.7	0.8	45.9	33.0	1.1
2015년	7.9	32.4	14.1	19.6	45.2	4.6	5.0	10.2	65.3	21.7	7.4	58.3	42.2	7.7

주 : 음영은 2015년 전체 평균(24.4%) 보다 높으면서 1995년 대비 비율이 증가한 지역
 자료 : 인구총조사(각년도) 재정리

[표/그림] 도외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표/그림] 도외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계속)



(4) 주간인구지수

- 상주인구 대비 주간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주간인구지수는 완주군 (113.8)이 가장 높고, 임실군(111.2), 진안군(109.6) 순으로 나타난 반면,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94.4)
 - 완주군의 경우 통근·통학 유출인구는 15,395명, 통근·통학 유입인구는 28,558명으로 유입인구가 13,163명 많고, 임실군은 2,899명, 진안군은 2,192명 차이 발생
 -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통근·통학 유입인구 - 통근·통학 유출인구
 - *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상주인구 × 100

[표] 주간인구지수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995년	99.8	100.8	100.8	99.6	101.1	96.3	94.4	104.5	101.1	102.2	102.0	100.5	100.9	100.0
2015년	94.4	102.0	99.9	101.7	101.5	105.5	113.8	109.6	102.4	105.4	111.2	103.5	102.2	102.8

자료 : 인구총조사(각년도) 재정리

(5) 지역연계지수

- 지역 간 생활권 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근·통학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지수 분석
 - * 지역연계지수 : (두 지역 간 통근·통학량 / 두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유출입 합) × 100
-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완주군(26.6)이며, 군산시-익산시(15.0), 전주시-익산시(12.5), 전주시-김제시(9.7), 정읍시-고창군(9.7) 순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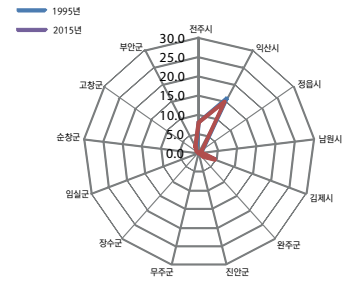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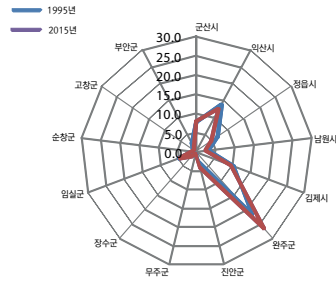
- 전주시의 경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과의 지역연계지수가 증가한 반면, 기타 9개 시군과의 지역연계지수는 감소
 - 특히, 완주군의 경우 1995년 대비 전주시와의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21.9→26.6)
- 전주시를 제외한 지역연계지수가 높은 권역은 정읍시를 중심으로 한 고창군·부안군, 남원시를 중심으로 한 임실군·순창군·장수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순
- 지역연계지수를 기반으로 한 도내 생활권이 강하게 형성된 지역은 크게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 전주시 : (1차) 전주시-완주군, (2차)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 익산시 : (1차) 익산시-군산시, (2차)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 정읍시 : (1차) 정읍시-고창군-부안군, (2차) 김제시
 - 남원시 : (1차)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구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7.8	12.5	4.7	2.5	9.7	26.6	4.3	0.6	1.3	4.5	1.2	0.7	1.7
군산시		15.0	1.2	0.4	4.6	1.3	0.2	0.2	0.1	0.2	0.1	0.7	1.9
익산시			2.0	0.4	8.2	6.2	0.2	0.1	0.2	0.3	0.1	0.4	1.4
정읍시				0.2	2.5	0.5	0.2	0.0	0.1	0.4	1.2	9.7	6.0
남원시					0.1	0.4	0.1	0.3	6.2	4.9	5.4	0.1	0.0
김제시						1.8	0.2	0.0	0.0	0.2	0.0	0.2	3.0
완주군							0.5	0.1	0.1	0.6	0.1	0.2	0.2
진안군								1.9	2.5	1.0	0.0	0.0	0.0
무주군									3.4	0.1	0.6	0.0	0.0
장수군										1.6	0.3	0.0	0.0
임실군											5.2	0.1	0.1
순창군												0.2	0.2
고창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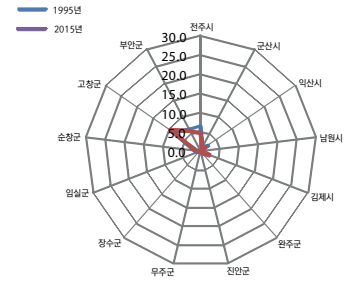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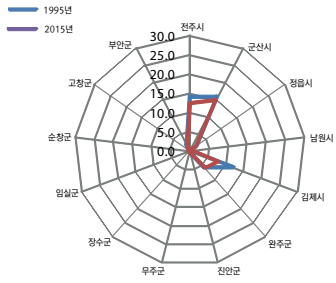
[표] 지역연계지수(2015)

주 : 음영은 2015년 생활권지수가 전체 평균 2.1 이상이면서 증가한 지역
 자료 : 인구총조사(2015) 재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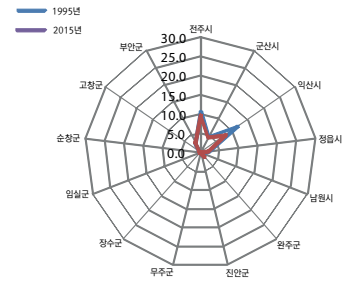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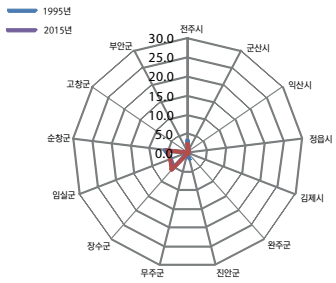
[그림] 전주시/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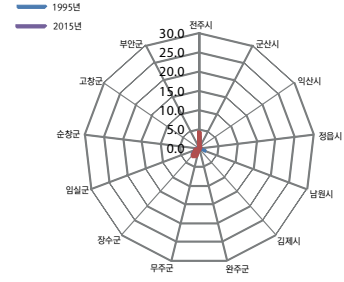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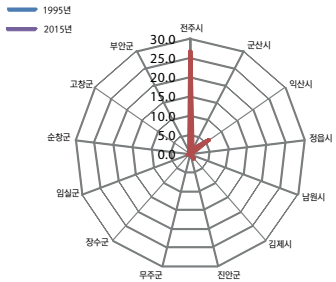
[그림] 익산시/정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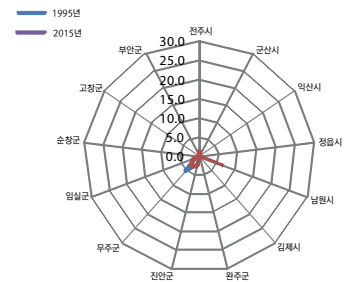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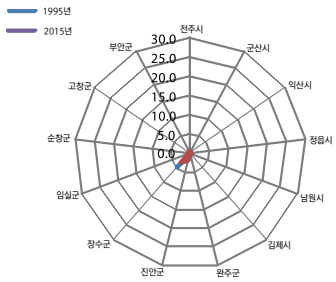
[그림] 남원시/김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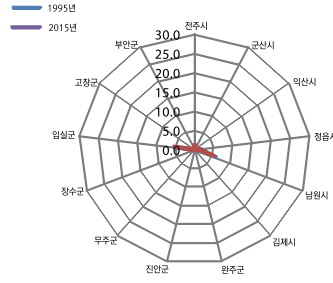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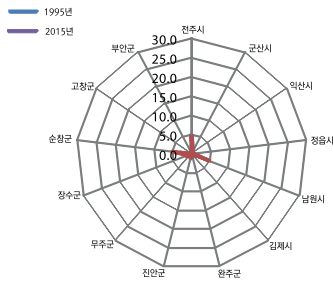


[그림] 완주군/진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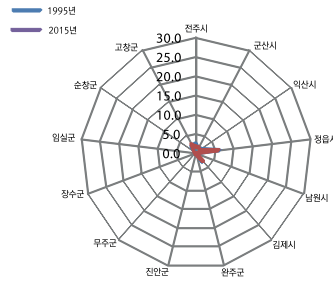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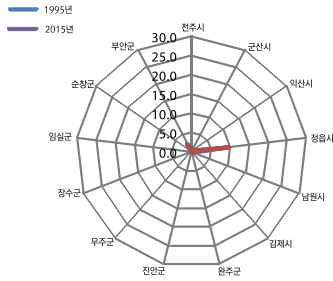


[그림] 무주군/장수군





[그림] 임실군/순창군



[그림] 고창군/부안군

(6) 시사점

- 전주 중심의 광역화 : 도내 접경지역인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 까지 통근·통학량 증가로 전주 중심의 광역화 진행
- 전주-완주 생활권 강화 : 전주와 완주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생활권 강화
- 새만금 인접 지역의 통근·통학량 확대 :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김제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 확대 (1995년 대비 42.5% 증가)
- 동부권은 전주시와의 통근·통학량과 지역연계지수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 완주군을 중심으로 통근·통학량과 지역연계지수 증가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1. 02. 25 vol.242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